
지역 제조업 연구·기능 인력 확보를 위한
비수도권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확대 건의

2026. 08



창원상공회의소

지역 제조업 연구·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비수도권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확대 건의

■ 배 경

현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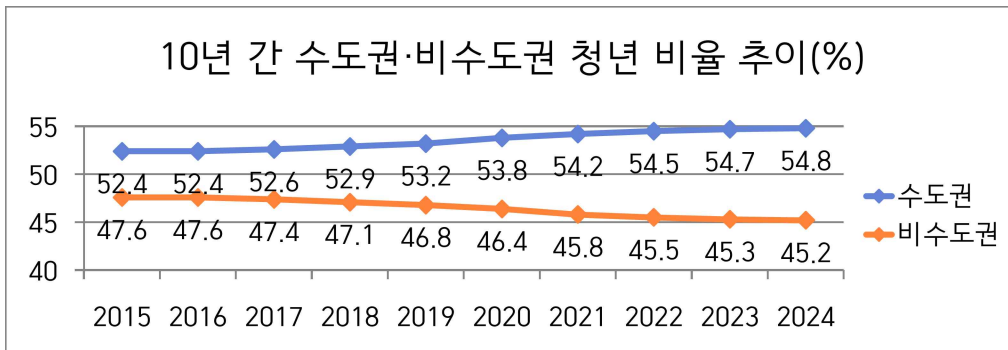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기계·조선·방산·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숙련 생산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역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기술 숙련 청년의 수도권 유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2015년 4.8%p 차이가 2024년에는 9.6%p로 벌어졌음. 특히 20대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약 6만 명, 누적 약 60만 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특히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 취업자의 62.4%가 비수도권 소재 학교에서 배출되었으나 실제 근로지 기준으로는 수도권 취업 비중이 56.9%로 나타남.

산업기능요원 현역 우선 배정 대상인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졸업 취업자 3,199명 중 약 79%(2,526명)가 비수도권 학교 출신임에도 근무지는 수도권 비중이 58.5%(1,8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마이스터고 졸업자 배출지(학교 소재)-근무지(근로지) 비교(2025년)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학교 소재지 기준 취업자	673명(21.0%)	2,526명(79.0%)	3,199명
근로지 기준 취업자 (보험가입자)	1,861명(58.5%)	1,319명(41.5%)	3,180명

* 학교 소재지 기준과 근로지 기준 취업자 차이(19명)는 해외 취업(15명)·농림어업종사자(4명) 때문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숙련 청년들이 지역에서 양성되고, 정착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가 병무청 배정 기준상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 1순위인 만큼 더 많은 청년 기술인력이 지역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가 필요함.

-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및 배정인원의 수도권 집중

2026년 기준,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중요한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876개사 중 727개사(83.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 기업은 기술인력 확보 경쟁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권역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현황 (2026년)

구분	지정업체 수	비중
수도권	727개사	83.0%
비수도권	149개사	17.0%
경남	8개사(비수도권 중)	0.9%
전국	876개사	100.0%

* 출처 : 병무청, 「2026년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한편 지난 6월 10일 발표된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대기업을 포함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는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참여가 일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AI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밀집 업종에 국한되어 기계·철강·방산·전기·전자 등 전통적 제조업이 중심이 된 비수도권 지역 대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술 인력의 수도권 유출 고착화 우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제조업 현장에서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 확보 수단으로, 청년층이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통해 지역 제조업에 진입할 경우, 복무 이후에도 해당 지역 또는 관련 산업에 계속 취업할 가능성이 있음.

지역에서 병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배정인원이 부족할 경우, 산업기술 숙련 청년에게는 병역 해결과 수도권 취업이 사실상 하나의 선택지로 묶이게 되어, 기술인력의 수도권 유출 구조 고착화가 우려됨.

■ 건 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단순한 병역대체 제도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현장 핵심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조업의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함.

아울러 비수도권 대기업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지정 분야 및 대기업 배정 인원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2026. 08. 20.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